



12면

종량대 토성, 후백제 최초 실물 유적

전주매일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음 12월 5일) 제390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 산업부와 성장엔진 협력 본격화

김정관 산업부장관 전북 방문

지역 주도 성장 5극 3특
성장엔진 관련 의견 수렴
도, 신재생에너지 등
전북 성장엔진 선정 요청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극 3특 성장엔진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북을 방문해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이 선정한 성장엔진 산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부와 전북도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장관과 김규성 지역경제정책관 등 산업부 관계자,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과 김인태 기업유지지원실장, 양선화 미래첨단산업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도는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첨단AI모빌리티 △푸드·헬스테크 3개 분야를 선정을 희망한 배경과 지역적 강점, 향후 육성 방향을 설명했다. 전북은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시가지 필요성, 산업기반의 차별성 사업 최적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산업을 선정 요청했으며, 기술고도화와 기업성적 인제안성을 축으로 산업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는 새만금이 첨단산업 실증이 가능한 국가 전략 테스트베드로서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역설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투자 유치와의 연계가 가능하며,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와 새만금 메가 샌드박스를 결합하면 신속한 상용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어 전북이 당면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새만금 RE100 선도 산업단지 지정과 한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현대차그룹 전북 투자 지원, 전주 탄소산업 AX 실증단지 선정, 완주산단 노후거점단지 경쟁력 강화 등 5대 핵심 현안에 대해 중

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김정관 장관은 "전북의 산업 여건과 정책 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성장이 곧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산업부장관님의 방문으로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중앙정부와 공유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기업이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완주 문화산에서 자동차 부품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근로자 오찬을 함께했다. 오후에는 군산 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소부장 기업과 현장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전북테크노파크, 전주상공회의소, 캠퍼스종합기술원 등 혁신기관·경제 단체장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산업의 강점 및 잠재력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중앙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미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투어패스, 브랜드 가치 입증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선정

14개 시·군 관광자원 연계 통합 관광패스 운영
체류형 관광 확대 통한 지역 간 관광 균형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표 관광상품인 전북투어패스가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지역관광패스 부문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은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국내 산업 발전과 소비자 만족에 기여한 우수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전북투어패스는 도내 14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전북투어패스는 201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광역형 관광패스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의 주요 관광지, 체험시설, 전시·문화공간, 교통, 음식점 등을 하나의 패스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광역형 관광패스다. 관광객이 별도의 입장료 구매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돼 여행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도내 14개 시·군에 분산된 관광자원을 하나의 여행 동선으로

연결해 특정 관광지에 집중되던 기존 관광 구조에서 벗어나고, 체류형 관광과 지역 간 관광 균형에 기여해 왔다.

2025년 기준 약 14만 매 판매, 자유이용시설 110여 개소 운영, 이용자 1인당 평균 4회 이상 가맹점 이용을 기록하는 등 실제 소비와 체류로 이어지는 관광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투어패스를 통해 관광객의 이동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프리미엄 권, 외국인 전용 상품, 교통 연계 상품 등 상품 다각화를 통해 이용자를 넓히고 있다.

신일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수상은 전북투어패스가 단순한 할인 상품을 넘어, 전북 관광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전북 전역의 관광자원을 더욱 촘촘히 연결해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경쟁력 있는 관광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허위 사실로는 전북 이끌 수 없다”

‘전북자치도지사 출마’ 민주 이원택 의원, 법적 대응 예고

“허위 주장, 새만금 국가사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



를 상대로 배후 부지와 추가 선석에 대해서도 재정사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 해온 사실도 이미 정경이 나왔다.

새만금 수변도시가 개점휴업 상태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며, 지난 2018년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수변도시 조성을 전담하도록 한 결정은 이원택 의원이 청와대 재직 당시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안인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수변도시 1공구는 공정을 약 45%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 이를 왜곡하는 현상마저 나타나 법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의원은 새만금 신항, 수변도시, 재생에너지, RE100 산업 전략 전반의 미래 전환을 이끌어 온 책임 있는 당사자인데 이를 아무 근거없이 왜곡하고 있다. 일부에서 말하는 "새만금 신항에 투자기업이 없어 개항이 어렵고 이는 이원택 의원의 책임이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여러차례 밝혀졌다. 이 의원은 "새만금 신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다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장기간 표류한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민자 방식이 검토됐으나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이원택 의원이 민자 추진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강하게 주장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2019년 새만금 신항은 5만 톤급 2선석 규모의 국가 재정사업으로 확정돼 본격 착공됐고 현재 1단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2028년 하반기 개장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은 국회 차원과 정부

2공구와 4공구도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말 실시된 근린생활용지 및 단독주택용지 분양은 100% 완료된 가운데 이는 수변도시 사업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구상은 이원택 의원의 대표적 정책 비전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8년 새만금 내측을 세계적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비전을 기획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고 이를 계기로 에너지융복합단지, 국가중합실증단지, 해상풍력 연구시설, 그린수소 실증단지 등이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들어서게 된 것도 이 의원이 청와대 근무 시절 이뤄낸 결과물이다.

전북 새만금 해상풍력 2.4GW 사업은 주민 수송이라는 난제에 직면했으나 당시 전북도 정부부지사였던 이원택 의원이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정

부·국회·지자체간 협의를 이끌어 주민참여형 모델과 수상업 상생 방안을 도출해 사업의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이 성과는 문재인 대통령 참석 하에 열린 해상풍력 비전 선포로 이어졌다. 또한 이 의원은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을 RE100 산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일찌부터 제시했고 22대 총선에서 이를 핵심 공약으로 공식화했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반도체와 첨단산업을 유치하려는 전략 역시 이러한 일관된 정책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허위 사실과 왜곡된 공격으로는 전북의 미래를 만들 수 없으며, 전북을 이끌 힘은 흠집 내기 아니라 검증된 성과와 분명한 비전에서 나온다"며 "학의적인 왜곡과 허위 사실 유포 및 비방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정음의 맛
상화차

정음 상화차로 건강 챙기세요!

찬바람 불면